

KB·신한 ‘방긋’… 보험사 실적이 지주 성적표 희비 갈랐다

KB손보, 작년 당기순익 7782억
지주 비은행 이익 ‘현금창출’ 축

신한라이프, 당기순익 5077억
신한금융 비은행의 ‘버팀목’ 역할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지난해 실적에서 보험 자회사 성적표가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은 2025년 당기순이익 7782억원으로 지주 비은행 이익의 ‘현금창출’ 축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도 5077억원을 기록해 2년 연속 5000억원대의 순익을 기록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3년차인 2025년 실적은 단순 순이익보다 보험손익·투자손익·보험계약마진(CSM)·지급여력비율(K-ICS) 등 ‘질적 지표’에서 차별성을 나타냈다.

KB손해보험은 2025년 당기순이익 7782억원, 자기자본이익률(ROE) 14.04%를 기록했다. 다만 보험 본업 지표인 보험손익은 6267억원으로 전년 9780억원 대비 35.9%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장기보험 손익이 7740억원으로 감소했고, 자동차보험 손익은 -107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사고 1건당 지급액(단가)’ 상승과 자동차·장기 손해를 부담이 보험손익



KB손해보험 사옥.

을 압박했다는 해석이다.

그럼에도 실적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배경으로는 투자손익이 꼽힌다. KB손해보험의 2025년 투자손익은 5284억원으로 전년 1773억원 대비 크게 늘어 보험손익 둔화를 상쇄했다.

자본여력도 개선됐다. K-ICS는 190.2%로 전년 대비 3.8%포인트(p) 상승했고, CSM은 9조285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25년에는 장기·자동차·일반보험 전 보종 손해를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보험손익 크게 감소됐지만, 대체투자 확대로 투자손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 순이익 감소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했다.

KB라이프는 ‘수익성보다 체력’ 지표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KB라이



신한라이프 사옥.

/각사

프의 2025년 당기순이익은 2440억원, ROE는 5.65%로 집계됐다. 보험영업손익은 2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 감소했지만, CSM은 3조2638억원으로 8.4% 늘었고 K-ICS는 270.2%로 7.1%p 상승했다. 신계약연납화보험료(APE)는 1조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금융에서는 신한라이프가 비은행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신한라이프의 2025년 누적 당기순이익은 5077억원으로 2년 연속 5000억원대를 유지했다. 세전이익은 7881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법인세율 인상 영향 등으로 순이익은 3.9% 감소했다.

다만 보험손익이 7090억원으로 6.8% 늘고, 누적 금융손익도 2031억원으

로 31.5% 확대되면서 실적의 하방을 방어했다. APE는 1조7209억원(8.9% 증가)으로 늘었고, 연말 CSM은 7조6000억원(4.5% 증가), K-ICS는 204.3%(잠정)로 집계됐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영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생보와 손보의 대비가 뚜렷하다. 하나생명은 2025년 연간 순이익 15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반면 하나손해보험은 지난해 연결 기준 47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단독 기준으로도 약 350억원 적자였다.

우리금융그룹 편입 첫해를 맞은 동양생명은 지난해 순익 1240억원을 거둬 전년 동기 대비 60.5%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지난해 1140억원으로 전년 동기(2740억원) 대비 58.4% 줄었다. 투자손익 역시 850억원으로 1년 전(940억원)보다 9.6% 감소했다.

동양생명은 “그룹 편입 이후 지난해는 재무 건전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영 전반의 체질 개선에 집중한 해”라며 “올해도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장성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운영과 손해를 관리를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현대카드

2월 문화 이벤트 다채

현대카드는 2월을 맞아해 전시·공연·요리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달 말까지 세계적인 대중음악 매거진 ‘롤링 스톤 컬렉션’ 전시를 연다. ‘브라질리언 그루브’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브라질 음악 특유의 감성을 정립한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대표 명반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달 14일에는 ‘현대카드 큐레이트 103 튜스데이 비치 클럽(Curated 103 Tuesday Beach Club)’ 공연이 열린다. 밴드 ‘튜스데이 비치 클럽’이 풍부한 밴드 음향과 담담한 보컬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얼터너티브 록 무대를 선사한다.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 교육지원

KB국민카드가 이달부터 2026년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취지다.

KB국민카드 한국어학당은 지난 2015년 시작된 KB국민카드의 글로벌 분야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일회성 후원이 아닌 장기적 교육 지원을 이어오며 진정성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언어 장벽으로 학습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족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선정된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 200여 명을 교육 대상으로 하며, 한국어 전문 강사가 아동의 나이와 수준에 맞춰 주 3시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우리카드

이큐비알홀딩스와 맞손

우리카드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우리카드 광화문 본사에서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기업 ‘이큐비알홀딩스’와 디지털 자산 월렛 및 지급결제 플랫폼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양사는 본격적인 서비스 개발에 앞서 시장 규제와 기술 트렌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책을 함께 마련한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제도권 금융 안에서 도입 가능한 최적의 블록체인 모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설 연휴기간 ‘대출 만기’시, 이자없이 19일로 자동연장

금융당국·금융회사, 명절대책
12개 은행, 연휴 금융거래 대응
고속도로 휴게소 이동점포 운영

금융당국과 국내 금융회사들이 오는 14~18일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자금난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도 추진한다.

먼저, 각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2월 14일~2월 18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를 2월 19일로 자동 연장한다. 이 경우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월 13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이어 설 연휴 기간 중 카드 이용액 대금 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연체료 없이 2월 19일까지 납부가 연기된다. 해

당 금액은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출금일은 연휴 이후로 늦춰진다.

또한 모든 금융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2월 19일에 환급한다.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월 13일에도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ETF 포함)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휴 직후(오는 19일~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단,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일부 채권·금·배출권 등에 대해서는 13일에 매도한 경우 거래대금의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 12개 은행은 설 연휴 기간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3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주택연금 주관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해 오는 13일 미리 연금액을 지급한다.

아울러 금융권은 설 명절 기간 동안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의자금수요에 따라 금리우대 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대출 및 특별보증 등 자금 공급에 나선다.

은행권에서는 설 연휴를 전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하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9조6000억원(신규 32조2000억원·만기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운영기간 및 금리 인하 수준은 개별 은행별로 상이하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

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공급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며, 총 대출 공급 규모는 9조원(신규 3조5000억원·만기연장 5500억원)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4조8000억원(신규 6000억원·만기연장 4조2000억원)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오는 13일까지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인천·부산 2개 단지서 3492가구 공급

분양 캘린더

일반분양 901가구 청약 개시

2월 둘째주에는 전국 2개 단지 총 3492가구가 공급된다. 일반분양은 901가구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한화 건설부문·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상인천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동, 총 2568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59㎡, 73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도보권 내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 입지다. 인천시청역은 향후 GTX-B노선 개통이 예정돼 교통 편의성은 더욱 향상될 예정이다. 차량 이동 10분 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가천대길병원, 인천시청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이용 가능하며, 상인천초, 인제고, 인천예고 등을 도보 통학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에 재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 8개동, 총 924가구 규모다. 이 중 단일 면적 59㎡, 총 16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반산초, 재송중이 단지과 맞닿은 초중품이 단지이고, 센텀학원가가 가까워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단지 중심 반경 1km 내 동해선 재송역이 위치해 부산 도심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등 대형 리테일 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견본주택을 여는 곳은 없다.

/안상미 기자 smahn1@